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설 경 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문 혁 준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세 변수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머니뿐만이 아닌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유치원 재원중인 만 4, 5세 유아와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분석 대상은 261쌍이다.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평균 및 표준편차, 백분율,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t-test, ANOVA 검증, Schéffe 검증, Pearson's의 상관관계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긍정·자기부정 자세의 배경변인인 아버지의 직업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타인에 대한 타인긍정·타인부정의 자세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서 아버지의 직업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배경변인인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유형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하위변인인 돕기만이 타인긍정의 자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조사결과,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변인인 돕기와 협력하기는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하위변인인 발달적 지지와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유형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의 상관관계에서 자기긍정·자기부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정적·부적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타인긍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타인부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유형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과 전체 양육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